■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 마태복음 6장 9-15절

Tag: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
>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6:9-15)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하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였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기도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격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소유하였고,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자였지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계획은 짜여졌고,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이 완벽한데 굳이 그토록 집요하게 기도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첫째, 예수님은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도가 필요하셨다. 우리도 대면하여 대화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전화나 카톡을 하게 된다.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것 보다는 현저하게 교제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전화나 대화가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기에 자연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범이 되셨다.

둘째, 인간을 상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으로 일을 망치거나 계획을 수정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유발시키는 인간들을 상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매우 인간적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지극히 섬기면서, 세심하게 상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화나 분노를 지니신 분이시다. 끊임없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결코 예수님께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려는 무리들이 가득한 세상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홀로 거하셨다.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감정정리와 대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

>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
>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수시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들이며 돌발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그는 자신들의 하수인이 되었으니 내 놓으라는 내용이다. (공정한 재판장이시기도 한 예수님께서 이 순간 불법적으로 제자 감싸기를 하실수는 없다. 그래서 기도

하고 계신다. 가장 지혜롭고 구원을 양보하지 않으시려고 형벌의 방향을 조정 하시는 것이다.)

결국 32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시험에 들게 되었고, 배신하게 되었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행동에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을 예측하시는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그의 곁에서 지키고 방어할 수 없는 지경, 곧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기인 것을 예측하시고 기도하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가 참회하고 돌이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예고하신 내용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셨던 것이다. 끊임없는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를 쉬지 않으셨다.

그러니 사탄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겠는가?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곧 주기도문이 되었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뜻한다. 하나님의 처소이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며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시는 곳이 없으시니, 어느 곳에 우리가 처하든지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성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정해서 거룩한 시간을 정해서 3차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된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만큼은, 그 시간 만큼은 온전히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2.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미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심에 대한 신앙고백이 들어 있다.

-기도하는 나 자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으니, 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히 여깁니다고 고하는 기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어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다.

-특별히 여기에 자신의 전도의 대상자를 개인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다.

4.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문은 자연히 마6:33절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문이다.

>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와 기도제목에 대한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구하려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미 구해진 바 되는 셈이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애쓰는 것이 가장 쉽지 않는가? 가장 쉬운 일부터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두 단어의 어미가 매우 독특하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제:단순과거
태:능동태
법:명령형(미래형)
-단순과거형은 과거에 이미 결정난 사건임을 뜻한다.
-능동태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임을 뜻한다.
-명령형이란 결국 미래형일 수 밖에 없다. 즉 미래에 이루어 질 것을 선언해 달라는 기도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오래 전에 실현되고 결정난 사건이며, 현재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며,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나의 청원과 동의, 찬성, 동참, 소망 등을 담고 있는 기도문인 셈이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셈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부터 시작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기도문이다.
-즉 이 기도는 단순 기도문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문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유발하는 기도이다.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문으로 적극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태의 문을 열고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로 터치며 들어가는 기도인 셈이다.
다음 기회에 나머지 기도문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